

달콤쌉
싸름한
세상에
끼어들기
한 판

5000 여성이여! 지구적으로 저항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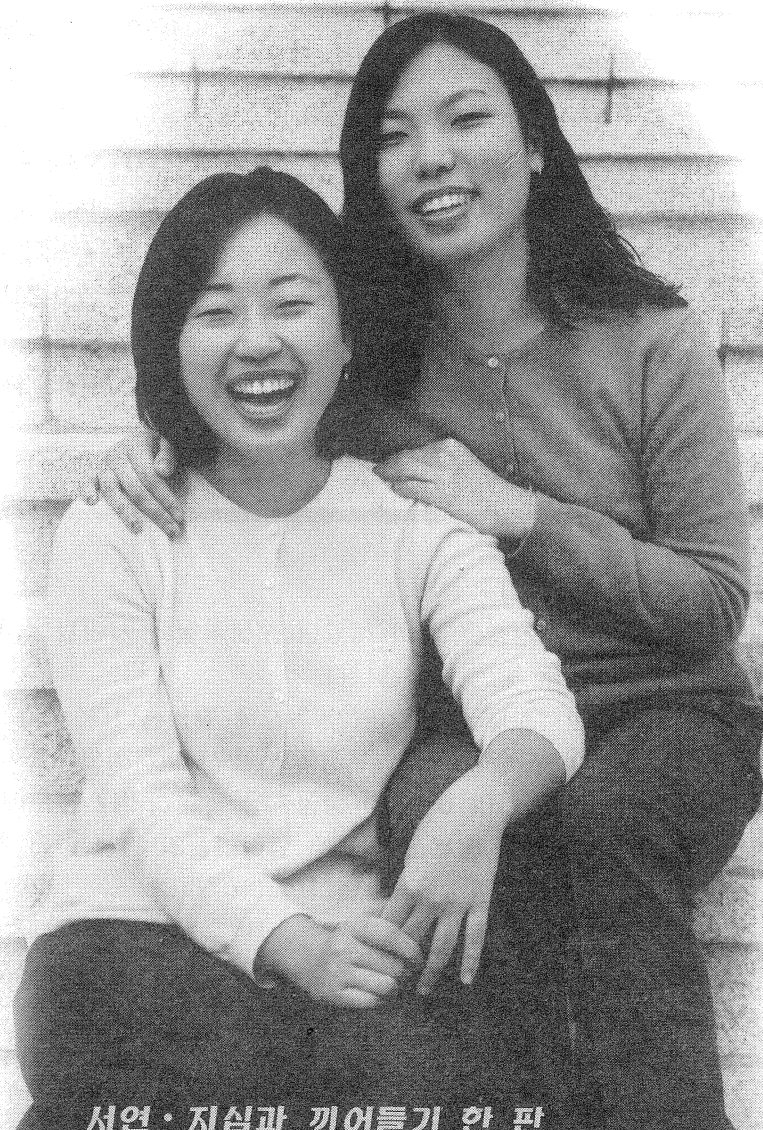


서연 · 지심과 끼어들기 한 판

5000 여성이여!

지구적으로 저항하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
사랑...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께...
행복...
살아...
나아가...



서연 · 지심과 끼어들기 한 판

전 지구적 저항의 첫 발걸음.
나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에 땀지걸기!!



정서연 (이학99)

- 1980 서울 출생
- 1999 서울 상명사대부속 여자고등학교 졸업
우리 학교 이학부 입학 / 7,8,9반 대표
우리 학교 중앙 동아리 '뎃바람' 활동
- 2000 13대 문리대 여학생회 집행부
- 2001 14대 문리대 여학생회 회장
문리대 여성학 실천 동아리 '새터' 활동
고이즈미 방한 반대투쟁 선봉대장

그리고 16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 입후보

전 언제나 슬래였습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찾아 해냈던 숨바꼭질의 시간들 속에서
전 언제나 슬래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슬래는 외로웠지만 그 대신 은밀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 '여성'이라고 이름지워진 이들의 멋진 이야기와 그 속에 담겨진 감동들을 말입니다.

모성보호법 강화를 외치며 이 땅에 여성권을 말살하려는 음모에 저항했던 여성노동자,

잔인하게 청춘을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생을 건 투쟁,

새 삶을 찾아 나섰다는 한 기지촌 언니의 이야기...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었지만,

'여성'이기에 싸울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세상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낸 그 은밀한 기쁨을 경희 5000 여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 그 은밀한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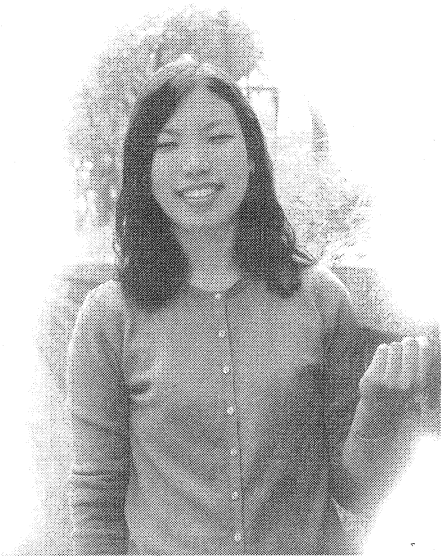
"은밀한 기쁨은 바로 저항이다!"

달콤 씹새름한 세상에
끼어들기 한판!

법 지심 (법학99)

- 1981 제주 출생
- 1999 제주 신성여고 졸업
경희대 법학부 입학
법대 '법사회학회' 활동
- 2000 32대 법대 학생회 선전부장
- 2001 33대 법대 학생회 부학생회장
법대 여성학 소모임 '딸기.나.무'활동
법청학련 반미구국단식단 활동

그리고 16대 총여학생회 부총여학생회장 입후보



'편한 것'과 '행복한 것'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구요?

저는 대학에 와서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익숙해진 세상에 그대로 길들여져 산다면 그다지 불편함을 모르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발에 채이는 돌맹이가 있다 한들,

재수가 없어서 그러려니 그렇게 여겨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은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약간 씹새름할 것입니다. 그건 아주 '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 끼어들기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튕겨 나오기도 하고 뭉개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 끼어드는 삶이 즐겁다고 그렇게 크게 외치며 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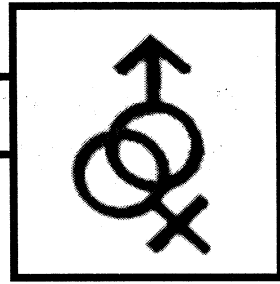
나처럼 돌맹이에 채였던, 또는 커다란 바위산 옆에 주저앉은 나와 닮은꼴인

당신과 함께 하기에 더욱 즐거울 수 밖에 없는 싸움,

그건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달콤 씹새름한 세상에 끼어들기 한판!

"여자로 사는 우리의 행복 찾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후보소개
내림비치

5	시대읽기 I 너와 내가 그리는 공동체의 꿈	
	우리들의 미래! 서연이의 기억 혹은 현재 진행의 이야기	6
	여성주의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9
	페미니즘 많기도 많다!	10
	잠깐광고	12
13	시대읽기 II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살기 위하여	14
	내가 사회로 나가게 되면, 그 때는 없길 바래	16
	경희 진단-경희대학교 여학생 취업률 엿보기	18
	하늘에 별을 따자	20
21	쉬어가는 글	
	새로운 단어 들여다 보기	21
	보지의 커밍아웃	22
	여성인물전	23
26	5000 여성의 지구적 저항!! 하나됨으로 가능하다! 총/ 여/ 학/ 생/ 회	
30	특집 반성폭력	
	성폭력 박물관 폐관식에 초대합니다	30
	여성의 몸으로 전쟁반대를 이야기한다	34
	가해자 인권침해? 그러나 너무나 극악한 죄!	36
38	문화읽기	
	표현해?! 말아?!	38
	미인열전-화장을 화장하라!!	40
42	실천약속	
	5000 여성의 전 지구적 저항 - 서연 지심이와 함께 하는 끼어들기 한 판	42

너와 내가 그리는 공동체의 꿈

우리들의 수다는 곧잘 수다 취급받기 일수였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모임을 계획하며 지구적 저항의 시
작을 기약해 보려 한다.
이 비집고 들어갈 틈 없이 단단하게 보이는 세상에 끼
어들기 한 판 어떠세요?



우리들의 미래 !

서연이의 기억 혹은 현재 진행의 이야기.

오늘은 여성주의자 모임이 있는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요즘에 가장 이슈화되는 사건들 중 "표현의 자유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

첫 모임에 대한 단상

첫 모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유도 각기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모임의 미래를 그려 보자며 팔 걷어 부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모임의 첫 시작을 여는 말인 즉슨....

"다 깨어질 준비는 되셨죠? 우리가 가졌던 사고가 온전히 다 진리라고 믿었던 과거에 기억에서 깨질 준비 말입니다. 어때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몸으로 실행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여성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질 다시 알아가고 모두 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성찰을 넘어 손잡고 걸어가기.

다시 이야기는 이어지고 한 남학생이 말을 꺼냈다. "여성 문제도 있지만 남성 문제가 있는 것도 간과할 문제는 아니야. 당신들의 생각은 어때?"

모두들 잠깐 엉뚱하다 싶은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원래 내가 알기로도 이 모임은 여성문제 해결과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목표로 삼고 모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웬 헛소리!

"남자와 함께 싸워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해. 그것이 여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상에 빠지면 안 되니까. 남성문제. 그래, 남성 역시 이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해. 가부장제의 과정에서 권력을 쥐든 쥐지 않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니까. 남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 서로의 개성과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건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모인 목적을 확실히 할 필요는 있지' 같은도 시작되었으나 우리는 모두 열려있거나 깨져 있어야 했고 그것은 확실히 길이 보일 때까지는 현재진행형이었다.

표현의 자유! 뭐가 문제야?

“ 왜 이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한 질문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제기되었다는 생각에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 표현의 자유에서 여성은 자유로운가? 과연?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물음에

“ 표현이 자유롭기는 해. 그것도 예전과 비교해서지. 하지만 제재를 받는 것도 많지. 이번 문제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더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던 거 같아. 그렇지만 그 수없이 넘쳐나는 표현물 중에 여성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말했다. 내가 생각하던 그대로.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여성의 입으로 말하기 혹은 여성의 시선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표현하는 첫 몸짓을 했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모임에 너무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터라 고민도 많고 부담이 되서 한 마디도 못 했었다. 내 생각이 노련해졌는지 발전의 과정이 있었는지 자문해 본다. 대자보를 썼다. 우리들이 한 이야기들을 공식적인 목소리로 담아내야 한다는 제안을 모임에서 받아들여기로 한 것이다. 그것들은 안의 이야기가 서서히 공공연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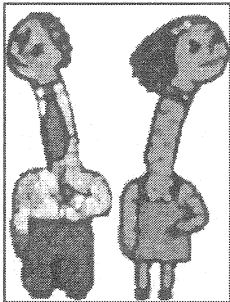
여성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사회의 강요된 삶에 반기를 들고 나온 우리. 한 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는 그 아수라장.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로 다가왔다.

밖으로 공개하는 형태의 정형을 찾아가기 시작한 후였다. 공청회를 열겠다고 썼다. 날짜도 적으면서 난 문득 정말로 각자의 개성을 지닌 "우리"가 뭉쳐서 무엇인가 해내고 있구나라고 느껴졌다. 변화를 감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 가능함을 깨닫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들의 의견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더 많은 고민의 거러들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이상 주변 의 이야기에 대한 소중함은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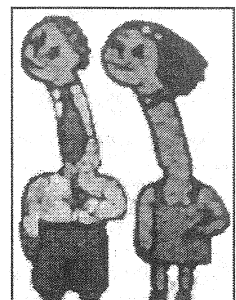
우리들의 정체는...

여성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사회의 강요된 삶에 반기를 들고 나온 우리. 한 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는 그 असुर장.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로 다가왔다.

그녀의 삶에 관심 갖기를 시작했던 처음부터 그에 대한 생각까지, 사회의 변화까지 바라보는 조금은 작다고 보일 수 있는 몸짓들이 이미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되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우리가 한 방향을 보면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너와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싸우고 싶다. 싸어들기 한 판은 즐거워야 한다.



더욱 부풀어가는 우리들.

'나 혼자만 느끼고 싶지 않아. 우리는 더 커져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다. 오늘은 친구에게 모임에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아니 공청회에 오지 않겠느냐고 한 번 초대할 해야겠다.

"별로 어렵지 않아.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건 네 안에 우습히 그녀의 삶을 관찰하겠다는 눈을 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관찰을 하게 되면 어쩔 때는 정말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아!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면 되는 거지."

세상하고 싸움하기. 그리고 내가 당신과 손잡기 위해

생각했던 것보다 견고하게 다져져서 비집고 들어갈 틈 하나 보이지 않았던 세상과의 싸움이 내 몸에 와서 부딪혔던 그 첫 날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영상이 있다. '여성'에게 화가 난다고 그래서 참을 수 없다고 눈물 흘리며 고향을 외치던 모습이다.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여성문제 해결을 언하기에 예전부터 이미 오랜 시간 싸웠던 그 사람들을 떠올린다. 같이 가자고 손을 자주 내밀어 볼 것이다. 그리고 그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같다. 오늘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물어보아야지.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끼어들기 한 판에...."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었을 때 나는 항거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은 나에게서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히틀러가 카톨릭 교회를 폐쇄했을 때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내가 속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히틀러가 드디어 신교도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에 대해 무엇인가 하기에는 이미 늦어졌다.
나 스스로 강제 수용소에 잡혔기 때문이다

- 니콜러 목사, 독일 루터 교회 목사, 1953

여성주의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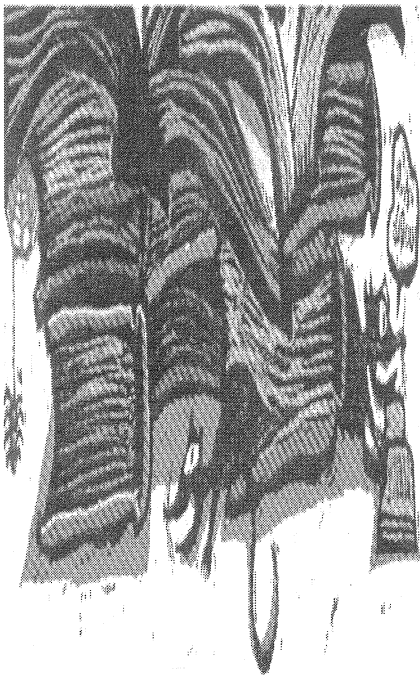
여성주의에 대한 편견을 버려자!

여성의 억압이 현실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성들이 하나 둘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의 원인과 이론적 배경은 다양했다. 그로 인한 활동의 양상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고 여성주의는 분열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성주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 더 이상 편견을 가지지도 말자!

여성운동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은 공존의 상태에 있다. 선택할 것인가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해야 할 운동을 선택하려고 한다. 남한 사회 이 현실 하에서의 여성의 삶에 변화를 부를 여성운동.....



페미니즘 망가뜨려 다



보수주의

남성은 남성의 할 일이 있는 법! 여성은 여성의 할 일이 있는 법! 각기 성에 맞추어 여성은 가정을 지키고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신체적인 열등성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라나 어쨌다나! 하지만 비판이 더 많았겠지요?

자유주의 페미니즘

여성운동이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쟁취하는 것부터 시작!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선거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침은 많은 여성들에게 쉽게 다가갔다. 그 동안의 억압을 가시화시키는 원초적 권리 박탈에 대한 반반과 천부인권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었다.

너무 다양 하다고요? 하지만 그 속에도 뿌리는 하나!

여성을 차별하거나 예속시키고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문론뿐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포함한다. 이제까지 자연스식에 의해서 도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제기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할 수

이 모든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이름하여 여성주의 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양성간의 관계를 어 두기만 한다면 양성간의 관계는 진전을 보이기 힘들 의를 바라보자! 여성주의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큰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마르크스의 등장과 함께 하였다. 여성 억압은 사유 재산의 소유가 시작되면서 함께 했었고 성차별은 이에 부차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여성해방의 전제 조건은 다른 아닌 생산 수단의 공유를 위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렇게 된다면 여성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계급에서 해방된다면 인간의 불평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여성해방은 부차적으로 함께 찾아온다는 입장. 특히 가사 노동의 사회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모두들 부담스러워하는 여성주의 이른바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여성운동. 여성억압이 모든 형태의 억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성주의는 출산에 의해 여성 차별이 이루어지며 신체적인 차이가 억압을 불러온다고 한다. 여기서는 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는데 현재의 성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이 가부장제 문화의 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여성주의에 비해 말한 그대로 급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터라 주위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너무나 여성적인 여성운동.

사회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의 성과와 마르크스주의의 성과 그 모든 것을 약간은 종합한 듯이 보이는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계급 사회의 착취제도를 지탱하는데 있어 가사노동의 기능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넘어서 양성적이고 완전한 인간을 지향하며, 또한 상품화되고 소외된 성의 여러 형태들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별 분업을 철폐하고 사회의 구조를 변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제기로부터 출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예속, 억압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론이며 이롭다고 혹은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온 많은 것들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의 대상은 인간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를 포함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라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라 한다면 당신은 동의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여성주의 흐름은 다양하지만 여성들이 자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여성주의가 어렵다고 협소하다고 페미니즘의 고정관념에 묶 것이다.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는 변화와 평등에 기인한다. 여기저기 동의하고 다시 여성주 나라 나에 삶에 필요한 운동이 아니겠는가!

잠깐 광고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두지 않고 모일 것이며 모두 하나 성 평등 사회의 구축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님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여성 문제에 귀기울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끊임없는 문제제기는 모두 그대로 공론화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다른 이의 반박에 또는 합의에 귀기울일 것이며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꼭 나눌 것이다.

개성 살리되 서로 의견을 존중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우리는 싸울 것이다. 싸우지 않으면 후퇴할 것이다 전진의 길을 걷는 우리는 여성의 역사에 단 한 번의 작은 싸움에도 달려들 것이다.



서연, 지심이와 함께 끼어들기 한 판 같이 하시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취업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주어진다.

외모, 학벌, 그리고 성.

하지만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그것
들을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 시작됨을 선포한다.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승리해야만 한다.



갑자기 4층에서 잠을 자던 노동자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했고 현관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비명과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가 사다리차 2대, 물탱크차 2대가 동원되고 조명용 소방차 2대가 대낮처럼 환히 불을 비추는 가운데 적진을 향해 돌진하듯 1천여 명의 정사복 경찰관들이 당사 안으로 밀어닥쳤다. 일부는 매트리스를 들고 투신에 대비하는 한편, 일부는 정문을 밀고 들어왔으며 일부는 당사 뒤편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담을 넘어 들어와 비상계단을 통해 4층 강당과 2층의 총재실, 기자실 등을 일제히 습격하여 닥치는 대로 때리고 부수면서 연막 가스를 터뜨렸다. 농성장인 4층 강당에는 먼저 사복 경찰들이 뛰어들어 열린 창문을 닫고 막아섰으며, 잇달아 방어용 철모와 곤봉을 든 기동 경찰 수백명이 들어와 노동자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한 사람앞에 4명씩 달려들어 사지를 번쩍들어 계단을 통해 차례로 끌어냈다. 당황한 일부 노동자들은 주먹으로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려 했으나 경찰은 이들은 폭력으로 제지하여 불과 10여분만에 모두 당사 밖으로 질질 끌고갔다. 몇몇 노동자들은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살을 기도하려 했다. 김경숙은 외팔 등땀이 끓긴 채로 4층 강당에서 떨어져 당사 후편 지하실 입구 아래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되어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새벽 2시 반경 숨졌다

-1979년 *YH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중에서-

* YH노동조합

YH무역은 60년대 말 당시 밀어닥치는 가발 수출의 호황기와 정부수출 정책에 힘입어 급성장을 거두었다. 그러나 YH무역은 수십 억의 돈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장영호 사장은 미국으로 도망을 간다. 회사는 폐업에 이르고 여기서 여성 노동자들은 120여 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이게 된다. 폐업 철회와 생존권확보 투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1979년 8월 9일 드디어 YH노조는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3일간의 농성을 진행한다. 이 투쟁은 이후에 한국여성노동조합의 설립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위의 투쟁과정에서 김경숙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희망은 보이는가

혹독한 IMF의 터널을 빠져 나왔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요즘 경기가 풀리고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기정 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삶은

그러나, 여성 노동의 문제의 어떠한가?

IMF 당시 악화된 여성 노동의 조건들은 개선되기는커녕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75%에 달하는 비정규직률, 저임금, 열악한 복지 조건, 여대생 취업률 2.5% 경제 회복이라는 달콤한 말은 여성 노동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 위기, 그나마 취업해 있던 여성 노동자마저 무차별적으로 해고되고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여성 신규 취업 문제를 논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 '배부른 소리'로 취급되었다.

여대생에서 여성 노동자로 가는 가시밭길.

'여자는 졸업하면 시집가서 애나 키우면 되지'라는 전근대적이며 극도로 남성 중심적인 편견 속에서 여성의 취업권은 박탈당해 왔다. 특히 여대생의 경우 대졸이라는 고학력이 마치 취업의 발판이라도 되는 듯한 이데올로기가 '여자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취직 잘 된다'라는 환상을 만든다.

여대생이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에서 받는 무수한 차별과 억압을 가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여대생의 미취업 문제는 개인의 능력 문제로 어이없게 치환되고 있다. 여대생이 구직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나는 능력이 없어요'라는 말로 곡해되는 상황, 여성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문제가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다.

"여대생=예비 실업자"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대졸자'라는 간판도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삭풍을 가려 주지는 못한다. 여대생 실업 문제는 반드시 무능한 몇몇 여성의 문제가 아닌 전체 여성 노동 시장의 문제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성, 여대생, 그리고 여성 노동자는 결코 분절되지 않는 이름이다.

예비 노동자가 아니라 예비 실업자라 불리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또한 이러한 말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노동 담론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여대생들을 손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여성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눈뜨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생산의 장이 될 노동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해답을 찾아나갈 것이다.

나의 외모와 능력을 키워내기에 앞서 우리의 여성의 여대생의 여성 노동자의 입으로 차별을 철폐하고 우리들의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자!

바로 이 곳, 지금부터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한다.



내가 사회로 나가게 되면, 그 때는 없길 바래!!

- 모성보호법의 개정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바라보며.....

얻었다!

- 우 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
- 우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남녀불문)의 육아휴직시 급여를 기존의 무급에서 유급으로!
- 우 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제한 규정 완화!
- 우 직장내 성희롱 처벌 강화!
- 우 남녀 고용 평등 취지 강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

여성 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켜줄 보루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한다.

신자유주의 바람은 계속되고..

모성보호법 /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정규직의 몇 안 되는 노동자를 위한 작은 당근을 내밀고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여성 보호 조항의 폐지의 다름 아니라고 한다.

개정된 여성 노동법의 모성 보호 강화와 모성 보호의 사회분담화의 환기는 높이 평가하고 지난한 싸움의 결과이기에 웃고 싶다.

그러나 적용대상은 고용보험 여성 노동자에게 국한되고, 전체 여성노동자의 39.8%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언제 짤릴 지 모르는 고용보험의 혜택과는 거리가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게 없어진 여성 보호 조항은 더욱 더 뼈저리게 다가온다. 시간외 근로제한 삭제가 바로 그것이다.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기만이며 남성의 연장 근로를 여성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이 마당에 '평등'이란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시킨 것이다. 이것은 개악이다.

반드시 모두 다 온전히 얻어낼 것이다.

정부가 주 5일 근무제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유휴 노동력 흡수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이다. 시간제 근로의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볼 보듯 뻔한 일이다. 진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시간외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7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일인 생리 휴가를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의 혜택과 맞바꾸려는 기도는 저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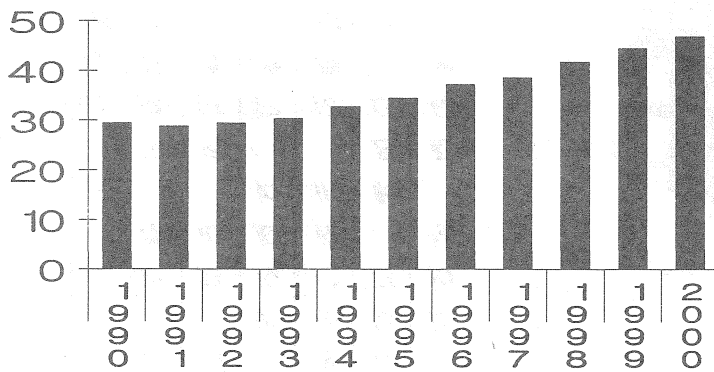


모	화	성	패	싸	여	기
든	된	노	하	워	성	위
여	어	동	는	야	으	해
성	야	자	의	한	로	서
의	하	의	길	다	서	는
출	고	현	에	노	말	이
산	현	실	우	동	다	다
과	인	인	리	하	는	
육	금	비	의	는		
아	에	정	여	미	살	
가	있	대	미	레	이	
서	여	생	모	행	행	
사	서	이	습	복	하	
회	여	을	인			
	절	함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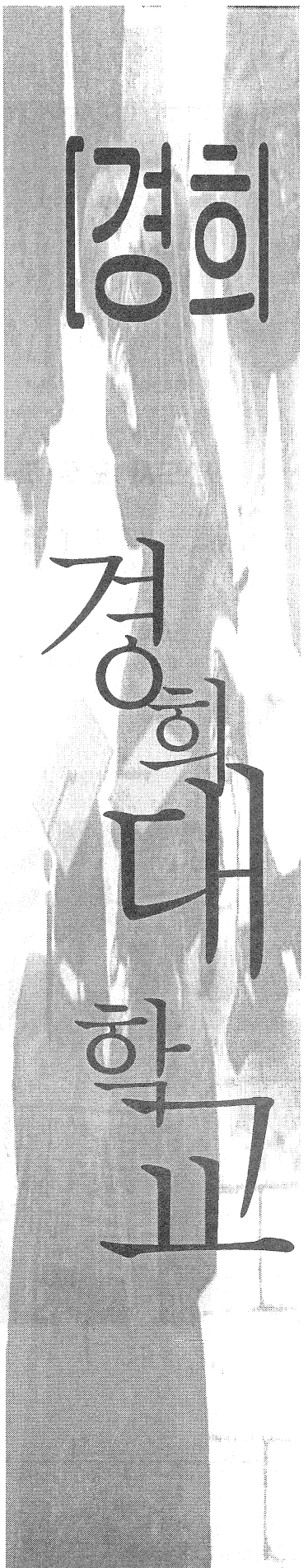
늘고 있는 여학생의 수

우리 학교의 여학생 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연 입학해서 졸업하는 모든 여학생들에게 학교는 그리고 사회는 안전한 취업을 보장하고 있는가???

연도	전체 학생수	여학생 수	여학생 비율
1990	8094	2621	29.44%
1991	8653	2492	28.80%
1992	8564	2525	29.48%
1993	8420	2558	30.38%
1994	8213	2687	32.72%
1995	8578	2958	34.48%
1996	8771	3262	37.19%
1997	9126	3517	38.54%
1998	9780	4085	41.77%
1999	10712	4760	44.44%
2000	11844	5547	46.83%



I GIVE A WORK!!! P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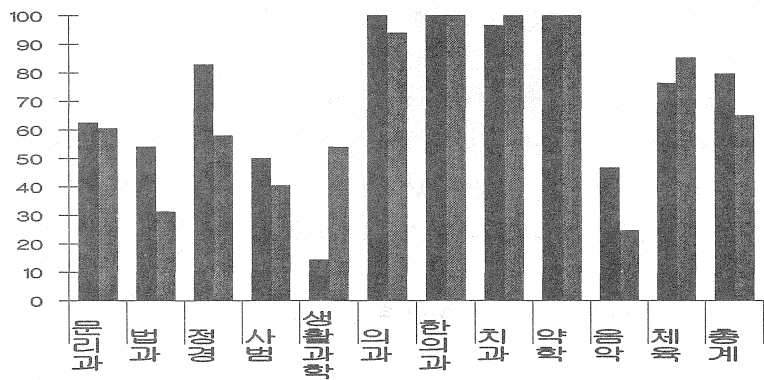
진단

여학생 취업률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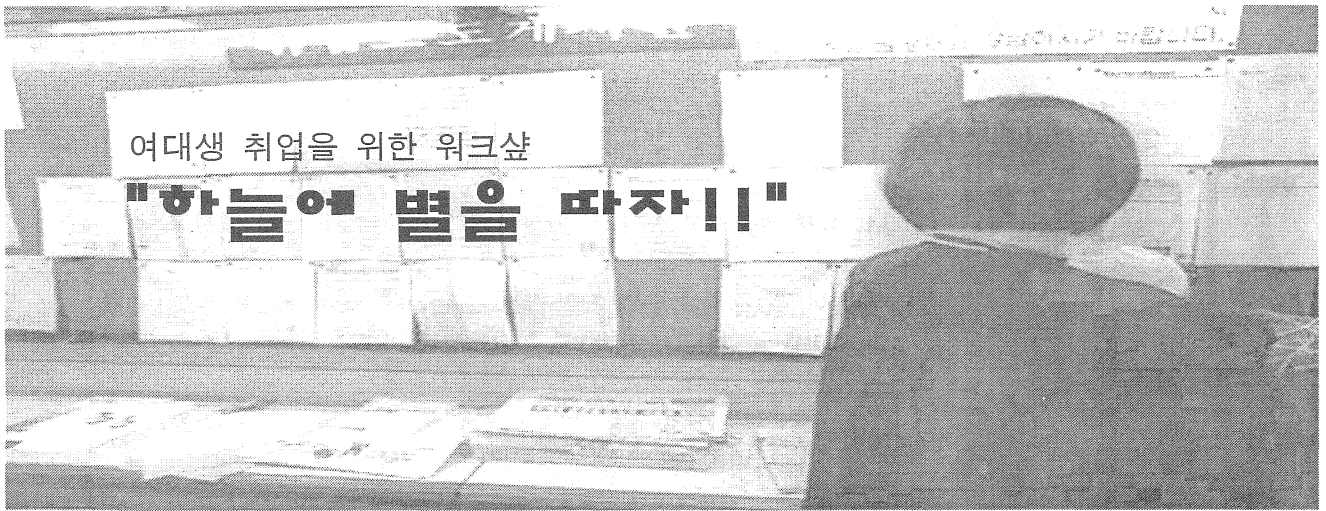
나, 이제 취업하고 싶어!! - 안전하게 일하면서 내 꿈을 펼치고..

지난 5년간 여학생 수는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학명	졸업자			취업자			취업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문리과	222	305	527	93	133	226	62.42	60.45	61.25
법과	117	32	149	27	5	32	54.00	31.25	48.48
정경	461	149	610	296	69	365	82.91	57.98	76.68
사범	19	58	77	9	21	30	50.00	40.38	42.86
생활과학	7	90	97	1	42	43	14.29	53.85	50.59
의과	80	147	227	74	138	212	100.00	93.88	95.93
한의과	97	25	122	91	23	114	100.00	100.00	100.00
치과	58	25	83	55	25	80	96.49	100.00	97.56
약학	34	59	93	2	19	21	100.00	100.00	100.00
음악	30	99	129	7	16	23	46.67	24.62	28.75
체육	80	39	119	58	23	81	76.32	85.19	78.64
총계	1205	1028	2233	713	514	1227	79.58	64.98	72.73



거의 모든 단과대학에서 여학생의 취업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취업을 앞둔 여학생들에게 희망적인 길을 제시하고 싶다. 갈 길이 멀지 몰라도 오늘의 싸움이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졸업식날에도 취업계시판을 둘러보지만 그 어디에도 일자리는 없다..

취업 WORKSHOP (가안)
WORKSHOP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토론회
 주제 :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바로 알고 타계 방안을 찾아나가자!"
- 면접 특강
 면접시 가해지는 성차별 극복 요령
- 02년 고용동향분석 및 03년 고용예상 / 모성보호법 개정 현황
- 비정규직 문제와 임시 고용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영상물 상영)
- 적성 검사 및 이력서, 지원서 작성 특강
-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자! (영상물 상영)
- 21C 여성 유망 직종 소개 및 선배 초청 강연

우리의 노동은 생산하는 그 자체로 즐거워야 한다. 그 길을 하나 둘 제시해 나가는 16대 총 여학생회와 함께 모색해 봐요.

- * 취업 정보실, 여학생과, 서울 여성 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의 학교와 외부 단체의 연대의 기초를 다져가면서 취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취업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 * 홈페이지 내 취업 관련 사이트 소개와 취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취업율이 좋은 학교에서 취업 전략을 배우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취업 실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안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여학생들과 함께 펼쳐내도록 하겠습니다.
- *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어 들여다 보기!



동성연애자 NO! 동성애자 YES!

'동성연애자'라는 표현은 동성간에 연애를 한다는 현상적인 의미와 성적인 부분만이 강조된 표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적체성과 성적지향성을 바탕으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매춘, 매매춘 NO! 성매매 YES!

'매춘'의 경우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었기 때문에 성을 사는 행위까지 포함한 '매매춘'이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봄춘자(春)가 여전히 사용되는 한 여성의 성을 봄, 꽃 등으로 대상화시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요. 때문에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표현인 '성매매'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자구요. 그러나 절대 다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없어진다면 더 좋겠죠.



폐경 NO! 완경 YES!

월경이 끝났다(폐)는 단순한 표현보다는 여성으로서 완성된다는 의미로 완경을 쓸 것을 권장합니다. '폐'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과 뉘앙스 때문이라도 폐경기의 여성들은 괜한 허무함과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완경'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 일상으로 여겨지는 월!마다 치르는 경!사스러운 일로 자리잡길 바라보기도 하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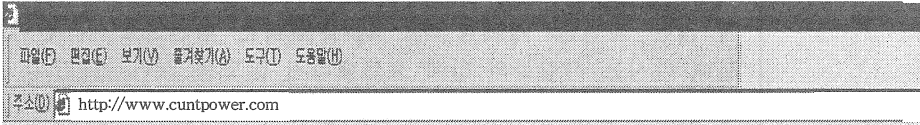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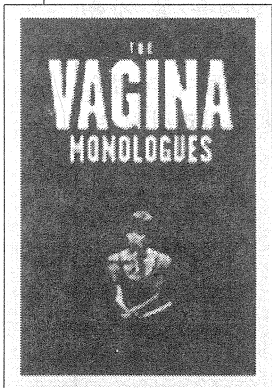


남녀 평등 NO! 양성 평등 ?! 성평등!!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남자가 앞에오는 가부장적 의식이 남을 수 있어 양성평등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는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역시도 남성과 여성의 두 성만 표현하고 있어 문제가 느껴집니다. 아님 성평등이라고 할까요??

보지의 귀미아웃

버자이너 모놀로그



보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

Welcome to www.cuntpower.com*

(배경음악은 SCUM(The Society for Cutting Up Men)의 '만약 당신의 보지가 말을 한다면'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 더 많은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게 될 때, 보지는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고 존중받으며 신성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지는 가식적이고 엄연한 현실이며, 또한 힘있고 지혜로우며, 보지를 말할 수 있는 여성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이브 엔슬러 -

저는 집주인 별나군입니다.

(e-mail : Mr.Pervert-vagina@cuntpower.com)

* cuntpower.com 사이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브 엔슬러 인용을 뵤위의 모든 내용은 제가 가상적으로 만들어 낸 연극적 설정입니다. 혹시 단 한분이라도 번거로운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SCUM밴드 또한 제가 만들어낸 유명 밴드로서 미국의 1960년대 페미니스트 발레리 솔라니스의 책 제목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음반 매장에서 SCUM의 'if your vagina could talk'를 애써 찾는 일이 없으시길.....

우리는 우리 몸의 일부인 보지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들의 기억을 더듬다 보면 확연히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보지라는 말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내 나이 그게 몇 살이었더라...그게 예전에는 내가 아주 어릴 때는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근데 생각해 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렸었지...난 부끄러워서 울면서 집에 돌아온 적도 있었어...근데 왜 그래야 했을까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않았다. 단지 그런 거였어... 부끄럽고 은밀한 부분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당위만을 줄곧 배워왔던 거 같아... 근데 왜?"

하지만 보지는 우리 몸에 있는 팔꿈치, 손가락, 이마, 목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인데 왜 유독 그렇게 감춰지고 이야기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몰아 세웠는지 모르겠다.

재밌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길....



자유게시판 '버자이너 모놀로그'는 보지들의 외침과 속삭임이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입체 음향 음성다중 공간입니다. 보지들의 다양한 회로애락을 맞보시려면 화면 아래 클리토리스(음핵)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도움말] 아이콘이 뜨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음핵을 살며시 누르시면, 초고속으로 자동 연결 됩니다.

[경 고] 보지가 없는 보안설정으로 게시판을 읽을 수 없습니다. 보지를 소지하지 않고 접속할 경우, 스크립트 오류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XY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지만을 편애하는 보지 소지자도 링크되어 있는 '보지끼리' 사이트는 열 수 없습니다. 한편 '아래', '잡지', '그것', '거기', '밀에', '지지' 등의 ID로는 회원등록이 안 됩니다.

[서비스 안내] 보지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가까운 보지 분실물 관리소 '응급실'을 방문하시면 신속하게 찾아드립니다. 보지는 가지고 있지만, 보지는 가지고 있지만, 오래 묵은 자지 때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목욕탕'을 누르시면 자궁 동굴에서 끌어올린 무공해 천연암반 온천수와 첨단 위생장비로 확실하게 밀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지가 마음에 안 들어 보지로 바꾸신 분, 앞으로 바꾸실 분, 그리고 자지와 보지 사이 중간이거나 색다른 모양의 보지로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는 사이트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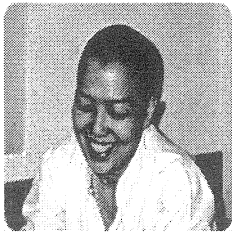
LOG IN // ID : dinnerparty Passward : 맞보(시)지?

... 질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자유게시판 '버자이너 모놀로그'의 목록에서 588번 제목 '별나군의 연극<보지 독백들>을 보고 '가 선택되었습니다.

여성인물展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



페미니스트 가수가 되지? 마냥 여성 가수라고 할 순 없을 거 같구.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머리를 빡빡 밀고 성별의 모호함에 서 있기도 하고, 유희의 노래인지 운동적인 노래인지의 경계에서도.

자신의 존재자체가 화두를 던진다고 이야기하며 페미니스트 가수는 각기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

짧게 짤른 머리에 대해 그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야. 머리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당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 머리칼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곤란해하는 것을 즐겨. 머리카락이 짧으면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머리카락이 아예 없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거지.”

알리스 슈바르처

글로리아 스테이넵과 함께 자국의 페미니스트 저널을 펼쳐낸 사람이다. <엠마>의 편집장이고 당시 독일의 <슈피겔>, <슈테른> 사이에 끼어 들어가 마녀들의 웃음소리를 내고 1977년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포트NO!운동을 시작한 엠마는 국회 청문회에서 검토할 만큼 이슈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매번 여성문제가 터져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법정 소송을 걸었지만 결과는 패소!!

그러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 하지만 승산없는 싸움에서 언제나 외로운 투사가 될 각오를 하고 있다는데.



생활하며 몸으로 싸우는 그들....

또 다시 여성

갈수록 작품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변영주

다큐멘터리. 누군가의 삶을 좇는 게 그녀의 습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녀가 시작한 것은 제주도의 일본인 매춘관광에 종사하는 언니들을 인터뷰해 만든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낮은 목소리],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담았다. 그리고 이어 [낮은 목소리-2]. 하지만 할머니와의 이야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할머니와의 동거동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 할머니들은 착하지 않아서 좋아요.... 착하지 않다는 건 언제나 자기를 중심에 놓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오히려 할머니들의 용기를 더 빛내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당해 본 사람만이 착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몸으로 실천하며 배우는 사람이 변영주가 아닐까?



유난히 '최초'가 많이 붙는 여자 - 나혜석



우리나라 최초 여성 서양화가이자 여권운동 선구자이며 진보적 사회사상가로 불리는 여자! 그녀가 바로 나혜석이다. 그녀는 화가에 그치지 않고 여성이 각성하여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여성들이 살림살이를 개량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담은 여러 논설을 쓰기도 했다. 신여성 이 주변의 낯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 [경희]를 쓴 근대 최초의 여성작가이다. 단지 글로써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진보적 여성 해방의 사상가였다. 김우영과 결혼을 하고 이후 최린과의 염문설이 나돌고 이혼을 한 3년 후 그녀는 [이혼 고백서]를 발표해 당시 보수적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5000 여성의 지구적 저항!!

하나됨으로 가능하다! 총/여/학/생/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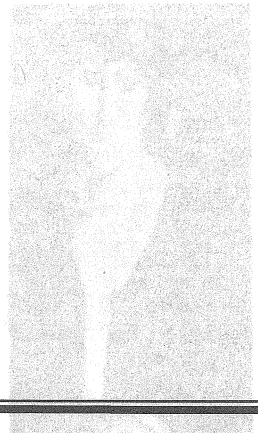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부러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이영자는 수술했음이 밝혀지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다.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를 당당히 삭제시켰다. 아직도 아니 아직까지 할머니들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있는데 일본은 사죄도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왜곡된 사실을 기록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를 확장실 역사라는 망언과 함께.

기지촌 언니들이 살고 있다. 친구의 죽음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것이 언젠가 자기에게 다가올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외출도 할 수 없다. 세인들의 시선과 죽음의 두려움이 이미 몸 속에 배어버린 이른 바 미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언니들이다.

여성 노동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언제 짤릴 지 모르는 위태로움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짝소리 못한다. 월급이 적어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신성한 생산으로서의 노동이 아닌 강제 노예로 전락해버린 여성 노동자가 있다.

성폭력을 없애자는 그 수십 년의 세월에 걸친 싸움을 배신하듯 아직도 거리를 걸어 다니는 여성들 몸 그 자체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고,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밤길 거니는 여성들이 있다.



역압을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축하하는 축제를 열
다.

정체성을 찾아나가기 위한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행해지고 있
다. 아예 “부부 생활까지 관리해줘라”며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
한 ‘음란 페스티벌’을 열며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검열 반대를
외쳤다.

신촌 앞 현대 백화점 앞 건물목에서는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쓴
정체불명의 여성과 남성들이 모였다. 미국의 보복 전쟁을 위시
한 “세계 모든 형태의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세금을 아프
간 여성을 죽이는데 쓸 수 없다”라는 구호가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건물목을 오가며 30분동안 비가 내리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했다.

동대문 어느 공원에서는 이제껏 은밀한 여성들의 약속인 양 소
곤거리던 월경을 이제는 긍정하자며 하루의 절반을 월경에 대
한 이야기로 도배하며 축제를 열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일을 더 이상 가정의 개인적인 일
로 치부하지 말자던 그 외침에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었는
지 01년 모성 보호법은 개정되었다.

진정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 수술을 감행하고 트랜스젠
더임을 당당히 밝힌 여자가 있다. 하고싶은 일을 찾아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찍는 하리수가 TV에 보인다.

축제는 계속되고 있다. 가슴 아픈 여성의 현실에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고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여성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축제였고 즐거움이
희망이 낭자한 한 판 소란이었다. 구호는 다양했고 그 산재하
던 구호들 속에서의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하
는가? 길은 보이는가!



여대생!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학은 보호 구역인 양 우리를 그 거친 세파로부터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면 우리는 그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 딸로 태어나 여대생, 어머니로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억압이었고 차별이었다. 매순간 싸우지 않으면 우리를 더욱 조여오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그 교묘한 결탁에 의한 피해를 모조리 받아 들어야 하는 것은 여성이었다. 수 없이 널린 구호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나의 생활과 떨어지지 않았던 일상의 문제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 않은가!

우리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

대학 내 존재하는 여성 문제는 사회 문제와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는 취업으로 가는 여대생의 길을 막고 있다. 사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의해 길러진 딸들은 이미 몸에 밴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2, 3차의 과정을 거쳐 세뇌 당하고 있다. 내가 생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곳에서부터, 대학사회에 널려진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역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움직여야만 한다.

순전히 우리들의 요구에 의해 가능한 싸움이며, 그 요구로 우리는 대중적 힘을 가진 학생회를 건설하려고 한다.

대학내 여성문제 우리가 책임지고 풀어간다.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의 탄생이 그러하듯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과정이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기 위해 우리는 집단적인 힘을 필요로 한다. 그것도 거대



하고 실제로 무엇인가의 변화를 꾀하는 힘이며 결코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개인의 문제를 또한 사사로운 그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가 이미 사회의 어떠한 연결고리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라면 이에 당당히 문제 제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희 여학우의 힘을 모으는 그 중심에 서서 사회에 있는 여성 문제, 대학 내 여성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총여학생회를 건설하자. 결코 본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고자 한다. 여성의 힘으로 여성 문제를 풀어내고 끝내 우리들에게 가해진 억압과 차별을 부수자.



서울 지역 여학생 운동과 경희총여의 역할에 대해 제고한다.

서울 지역 여학생 운동은 서로 다름을 이유로 갈라서고 있다. 또한 서울 지역 여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는 몇 년간 정체된 길을 걷고 있다. 싸우는 여대생은 많으나 이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공동의 소리로 선뜻 서로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절실히 새로운 연대모임을 고민해 본다. 다름으로 벌어진 사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서울지역 여학생 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그 속에 경희대 총여학생회는 이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지체없이 달려들 것이다. 남한사회의 중심지, 수도 서울에서 새로운 여학생운동의 정형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 학교 운동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다. 여학생 운동의 단결! 이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박물관 폐관식에 초대합니다.

성폭력의 위협속에 살고 싶진 않다!

동기 친구들과 함께 MT를 다녀오게 되었다. 도착해서 밥도 해먹고 즐겁게 술도 꽤 올라 분위기는 더 무르익어 갔다. 그런데 술이 오르고 사람들은 쓰러져 이리저리 엉켜서 자게 되었다. 나도 술을 많이 마셔 쓰러져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다가 뒤척이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다. 그러자 옆에서 자고 있던 남자 친구는 급하게 돌아누웠다. 그리고 보니까 내 웃웃의 단추가 풀려있었다. 난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드러누웠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혹시 내가 술에 취해 풀어 버린 건 아닐까? 이제 그 애 얼굴은 어떻게 보지? 내가 술에 취해서 그런거야...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그래 잠시 있고 살면 되는 거지... 잊어버리고 살면 끝일 거야...'

그 후로 나는 다시 MT는 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 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과 동기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자꾸만 그 때의 잘못된(?)을 누가 알까 싶어 나도 모르게 눈길을 피하곤 한다.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지내 려고 해도 자꾸만 그 때의 그 기억과 그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 다시는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 같다.

당신에게 든든해지고 싶다. 나?!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친구는 이성이라는 느낌도 없고 마냥 편해서 이리 저리 고민을 털어놓던 친구였다. 그렇게 그 친구와 자주 밥새 일도 같이 하고 하숙집이 서로 가까워서 술도 가끔 마시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단둘이 동아리 방에서 서로 컴퓨터를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 게임도 놀았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친구가 뒤에 와서 내가 컴퓨터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뒤에서 나를 안았다. 나는 편하게 지냈던 친구라 웃으면서 왜 이러느냐고, 이러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잡으는 벽에 밀어 붙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놀라서 소리를 지르다가 손을 뿌리치고 가방도 챙기지 않고 동아리방을 나와버렸다.

그 이후 한 동안은 친구를 다시 볼 수 없어서 피했다. 동아리도 잘 안가고 그러자 선배 언니가 찾아와 나는 그 때의 상황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그 언니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이 있다면서 총여학생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 .



불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그것을 성폭력으로 구분하기가 모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주관적 판단인지 가해자의 의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의 용서가 주어지죠. 그러나 불쾌한 그 느낌은 성폭력의 피해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며 그것은 피해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피해자 개인의 불쾌한 그 느낌이 바로 주관적이며 유일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불편한 느낌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너의 행동이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제할 수 있도록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이 때 상대방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네가 유도한 거 아니야?” 하는데 난 그냥 편해서 그렇게 만났던 거 뿐인데....



사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제 3자의 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그것은 실수에 의해서든 고의에 의해서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위 사람들의 위치와 입장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잘못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편하게 지냈던 것을 오해하고 그랬다면 한번은 물어보고 혹은 얘기를 하고 나서야 가능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을까요? 이리저 말라고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그랬다면 이 문제는 분명 성폭력입니다. 자신있게 말하세요. 난 유도하지 않았다고. 이 세상에 성폭력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해자 실명공개...라는 게 있다던데....근데 그렇게 되면 저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망설이게 되요. 어찌죠?



가해자 실명공개에는 사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사실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한다는 자체로 가해자에게 엄청난 인권의 손상이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가해자가 받았던 인권의 손상이전에 피해자에게 인생을 걸고 찾아들 그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 봐야 해요. 미리 알고 있다면 가해자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없어야겠죠.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한다는 것은 가해자 스스로가 죄를 시인하고 그것을 고쳐나가겠다는 하나의 의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 역시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가해자를 존중해 주는 것 말입니다.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삶의 주체로. 그리고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찾아올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 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관련 규정에 의거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이 있고 보복을 가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런 것에 대해 모르지 않나요? 많이 알려낸다면 더 생길 수 있는 성폭력 범죄를 없앨 수 있을 거 같아요...



맞아요. 그 동안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학교내에 사람들이 이것들을 하나 둘 알고 실제로 일어날 범죄에 미리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나 보호책이 될 수 있는데 많이 알려야죠.

기간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직 많은 부분 밖으로 공론화되어 학교를 걸어나다니며 매일 자신의 몸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리고 누군가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한 규정이 이제 제정에 단계에 이르고 있는 지금에 있어 이것들에 대한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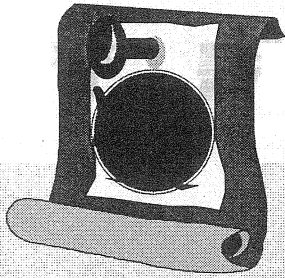
경희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성폭력 박물관 폐관에 함께 해야 합니다.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가해자 - 피해자의 단 둘만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학내에서 실제로 이러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모두가 성폭력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 나서서 반드시 성폭력 박물관 대학인 이 곳을 폐관하자!



폐관식 행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학우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단대 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여성학 관련 수업을 통해 성폭력에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교양강의 평가 질문항목에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첨가하고 이를 통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caution!!

- 진입금지 -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때때로 찾으시던 '성폭력 박물관'이 오늘부터 폐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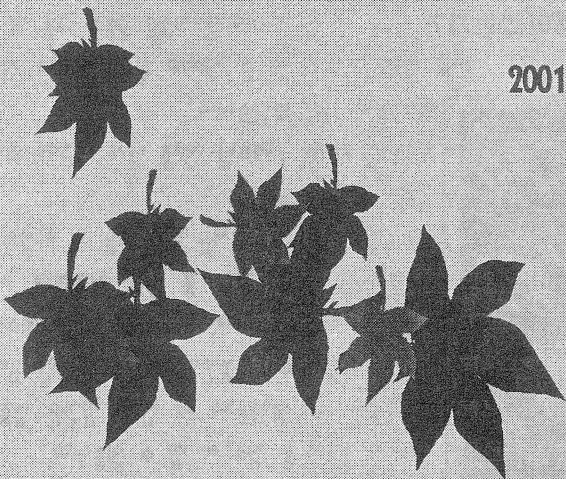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곳은 곧 '반성폭력 박물관'으로 다시 개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1월 16일

성폭력 박물관

관장 백



성
연
무
모

여성의 몸으로

전쟁反對를 이야기한다!

A N T I W A R A N T I W A R A N T I W A R A N T

연일 미사일포가 쏘아지고 지상군이 투입되어 오사마 빈라덴을 잡으려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밤하늘을 수놓은 포탄의 행렬은 축포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먼 이국의 땅으로 쏟아지는 축포를 텔레비전 브라운관으로 쳐다보고 있노라면 그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한 조선 소녀가 너무 자주 강간을 당해서 성병에 걸렸다. 그 결과 50여명의 일본군들이 성병에 감염되었다. 병의 전염을 막고 그 소녀를 ‘소독’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들은 뜨거운 쇠막대기를 그녀의 음부에 찔러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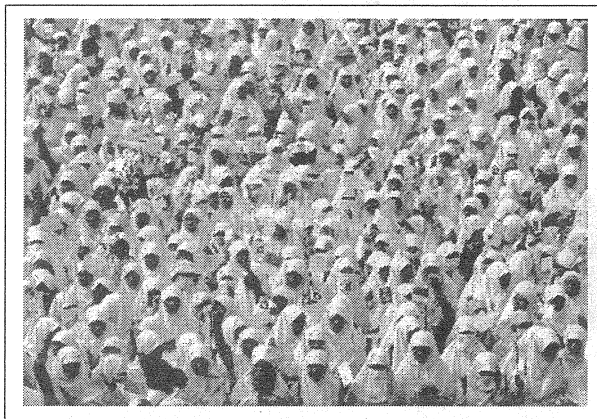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우선 우리는 그녀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녀의 양 가슴을 군도로 그은 뒤 땅바닥에 큰 대자로 눕혀 질에다 삽을 쏘서 박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그곳에서는 2만 또는 그 이상의 여성들이 강간 등 온갖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대량 강간은 보스니아 정부가 ‘강간캠프!’ 라 명명한 곳에서 발생했는데 이 전쟁 강간은 일종의 ”인종 청소“라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엽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전쟁을 반대하는 아프간 여성의 외침이 들리는가!

N T I W A R A N T I W A R



1010 전쟁반대 신촌 앞 건물목 시위 장면

이 잔인하고 고통스런 데이터(전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전쟁은 고통스런 것이다? 잔인하고 더러운 것이다? 전 역사를 통해서 전쟁시에 여성들에게 강간이 행해졌다. 그것은 효과적인 인종청소의 한 방법으로 전해져 왔던 것이다. 민족, 종교, 인종의 차이 등으로 인해 벌어진 전쟁 중에 상대방 여성의 몸은 그 민족 또는 그 집단의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집단 저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생식 능력을 마비시키고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집단 남성을 응징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전쟁시뿐인 것은 아니다. 평화시에도 여성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성폭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여성의 몸이 정복할 대상으로 남아 있는 한 전쟁시든지 평화시든지간에 폭력은 자행될 것이다. 만일 여성의 몸이 필연적으로 어느집단의 또는 민족의 대를 잇는 저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면, 성폭력이라는 것이 남근 중심의 권력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면 전쟁시 또는 평화시에 그렇게 집단 강간이나 여성의

몸, 성기에 광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현대전에 이런 집단 강간은 없을 것이라고? 현재로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21세기 新전쟁 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무엇인가? 오래 전부터 난민 생활을 해 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총탄에 죽어가거나 굶어서 죽어가거나 질병에 의해 죽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백인 남성들의 인종청소 라는 더러운 음모 아래 출산과 양육의 고충을 담당해야 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총탄으로 살이 뜯리는 것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가해자 인권침해? 그러나 너무도 극악한 죄!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지난 8월 30일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청소년 성매매를 자행한 성인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해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신상공개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닳을 올린 벼처럼 벅둥거렸다. 그 중 가장 많이 의견이 기우는 것은 “이것은 가해자 인권침해가 아닌가? 공개가 능사는 아닌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극악한 죄이기 한데...” 그냥 두고 보면 이 배는 기우뚱하다가 보호해야만 하는 성을 보호한다는 논리에 빠져 더 많은 성인 여성들의 피해를 간과하고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가해자 인권침해라는 명백히 범죄자인 사람에 대한 인정 베풀기는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대항행위가 강간보다 더 무시무시한 폭력으로 여겨지는 어이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앗! 뜨게! 실명공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실명공개는 이미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에 의해서 성폭력 사건 해결운동의 일환으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은 평범한 남성들 가장한 마초들에 의한 끔찍한 테러와 강철구, 박일문 등 명맥한 성폭력 가해자들로부터 '100인위'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하는 등 아주 뜨거운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당하고 순종하고 당하면 당하는 대로 숙명으로 알고 살으라는 옥박지름 속에서 여성들은 살아왔다. 밟으면 아포다고 “아~” 소리를 내는 그 첫마디를 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아~”로 시작한 대항의 소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있는 것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솝우화가 말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을병에 걸렸던 주물장수가 대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죽을병에서 살아나지 않았던가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패인 상처는 말하지 않고서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의....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를 청소년 성범죄자로 한정을 짓는 것은 공개 주체가 청소년 보호 위원회라는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를 일토당토않게 나이로 규정지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전의 ‘보호받을 만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논리가 ‘보호받을 나이의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흐르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

의 인권 운운하며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대항을 막으려는 행위가 여전히 압도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 특유의 정서, “가해자의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겠니?” “그 사람도 딸과 부인이 있는데 너무 망신을 주는 것은 아닌가?” “가해자를 아예 매장시키는 행위다 신상공개는 너무 과격하다.” 가부장적인 온갖 장치들을 동원하여 성폭력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는 여성의 상처를 더 후벼판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 실제로 가족 안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자행되는가 근친간강간을 일삼는 남성을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지 않는다면 제2의 김영오(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탄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가해자는 가해

자이고 격리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지독하고 맹목적인 가족주의로 인한 상처의 묶은 또다시 여성들에게 주어지고 마는 것이다. 신상공개가 과격하다면 이렇게 할까? 함무라비 법전대로 가해자의 자지에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히고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것은 좀더 온건한가? 신상공개는 단순히 응징이 아닌 셈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 또는 모든 성적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가해자들로 하여금 수치스럽고 반인권적인 것으로 알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처를 발화함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하는 것이다. 아직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성의 눈으로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표현해?! 말아?!

표현의 자유에 발을 걸지 마십시오~~

표현에 자유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포르노그래피, 누구누구의 앨범. *양 비디오, TV 드라마, 소설, 영화 등 일련의 통신상이나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표현물에 탄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유난히 성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검열 및 법적 장치를 통해서 “음란물”을 억압하는 국가권력과 보수적인 종교 및 시민단체 VS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운동단체의 싸움이 이번 박진영 앨범 “GAME”을 두고 일어났다.

음란하고 더러운 표현물들이여! 우리 청소년을 멀쩡하게!!

악마의 유혹인 성으로부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적 표현물들로부터 청소년을 격퇴해야 한다. 손길을 지켜줘야 한다. 음란하고 더러운 성적 표현물들이여!! 이 땅을 떠나라고 대낮에도 길거리에서 외치는 이들이 있다. 이른 바 이들의 주장은 바로 우리들의 미래인 아들 딸이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그래,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라면 당연히 멀쩡해야지. 하지만 그 기준의 모호함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닫아놓고 잠겨 놓았던 성의 문을 빼꼼이 열어 볼라치면 너무나 쉬운 통로들이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주의 사고에 기반한 우리들의 기발한(?) 사고를 동원한 어른들이 만들어낸 포르노 비디오는 어느 어느 거리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이 모양을 지켜보던 우리의 아이들이 할 말이 있다고 모였었던데....

청소년 드디어 입을 열다!!

“우리도 성적 주체이지 않나? 일상적으로 섹스를 이야기하며 제 친구는 피임법을 알고 있을뿐더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자신을 챙길 준비 역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런 친구들 주위에 많아요. 청소년이 미숙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인식에 의한 규제는 금지 만능의 보호가 청소년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규제에 쏟을 에너지를 포르노 같은 현상을 보고 입을 수 있는 시각을 키워주는 데 소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세요. 인류공존의 차원에서 말이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라!

동성애 관련 잡지, 성교육 지침서, 안전한 섹스, 피임법 등 성에 대해 논쟁적이나 불쾌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유용한 표현물은 필요하다. 규제는 성적으로 논쟁적이어서가 아니라 성 차별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상처와 같은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서 말이다.

“표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전제 위에서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옹호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의 도식적인 전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표현하게 할 것이냐 못 하게 할 것이냐의 이분법보다는 표현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지금은 '기이'하고 '변태'적일지도 모른다고 치부되기는 하나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만 제시하는 데에서 수용한 표현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미인열전]

- 화장(化粧)을 화장(火葬)하라!!

1882년 멋쟁이라면 불행한, 병든 모습을 보여야 했다. 길게 자란 손톱, 기른 것도 짧게 깎은 것도 아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라버린 듯한 수염, 이처럼 자신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심오하고 고귀한, 방황하는 듯한 비장한 눈길. 인류에 대한 경멸로 일그러진 입술, 존재에 대한 신비감과 혐오감에 사로잡힌 바이런과 같은 고뇌하는 심정을 지녀야 했다

- 샤토 브리앙 <무덤 너머에서의 회상>



나일 강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이래, 날씬함이라는 여성의 이상은, 토실토실한 여성이 용인되던 15C와 18C를 제외하고 서양 미학의 절대 명령이었다. 이 시기부터 설사약에서 식이요법을 거쳐 절제술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스스로 고통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외쳤다.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

- 작자 미상

화장하다!!

화장은 2가지의 목적 하에 생겨났다. 하나는 열악한 자연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몸을 치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없었으며 각각의 성에 맞는 화장을 이용했을 뿐이었다.

남자의 손에서 조금씩 멀어지다.

앙리 3세는 죽을 때까지 화장을 즐겼다고 한다. 로돌프 2세 역시도 남성이라고 해도 화장을 했다고 한다. 고대 벽화를 보던지 남겨진 기록들에서 화장은 성을 가리지 않고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라 점찍을 수도 없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화장은 점차 남자의 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화장의 주도권을 쥔 여성, 그러나 여성의 영역에서 허우적거린다.

주도권은 여성에게 쥐어졌다. 허나 주도권은 실상 온전한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여성의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직장에서 쉽게 용납되지 않으며, 피부 부작용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화장해야 할 때도 있다. 아름다움의 족쇄에 원치 않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선택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다.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화장할 것인가 마는가 하는 문제는 세상에 의해 선택되며 20대에 들어서면서 마치 하나의 관습처럼 자리잡는다. 수 없는 화장품들이 난립하고, 아름다움은 조작되고, 유행이란 흐름이 형성된다. 누가 만들어 내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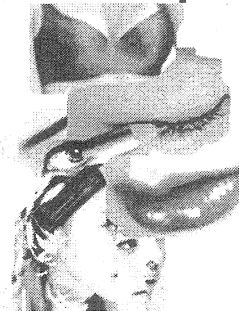
화장하기 싫어! 화장하고 싶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두는 건 어떨까? 아름다움을 조작되어진 각본 속에 자신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표현하고 만족하는 그 자체로 넘겨주는 건 어떨까? 하고 싶을 때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면 어떨까? 우리의 기본 내키는 대로 화장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하나의 즐겁이다. 표현의 즐거움.

오늘 화장을 하며 거리를 나서며 아름다움에 대한 나만의 진정한 화장을 가져보자.

누군가 나의 화장에 알가알부 하거든 이렇게 말하리라! “당신이 바라보는 나는 내가 아니었고 화장이라는 것이 어느 세 나를 조여 왔죠. 오늘은 당신을 위한 화장이 아니라 나를 위한 화장을 했죠. 어때요?”

내 화장(化粧)에 손을 대는 게 있다면 당장 그것을 화장(火葬)할 것이다. 방식은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 일종의 일탈을 감행하리라!! 화장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5000 여성의 전 지구적 저항 서연 지심이와 함께 하는 끼어들기 한 판

첫 번째 끼어들기

여성주의자 모임 '끼어들기 한 판'(가칭) 건설

현재 성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여성문제가 있을 때마다 단독한 결함력으로 학내 구성원들과의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임입니다. 물론 회원이 되는데 성별이나 학년은 상관없이 모두 모두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 @ 학내 여성학 소모임에 제안, 공동행동 하기
- @ 정기적 공개 토론회
- @ 각 단대 학생회 방문하기

두 번째 끼어들기

이 땅에 살기 위하여 - 여대생 취업에 대한 대책 마련

취업률이 좋다는 말은 현상적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7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한 취업전선으로 나가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취업 대책을 찾아본다.

- @취업 워크숍 개최
- @취업 신문 발간
- @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내 취업 관련 사이트 소개 및 취업 정보 공개
 - @우리 학교 취업 실태 정보 공개
 - @다른 학교 취업 전략 배워오기 및 공개
- @학교 기관(여학생과, 취업정보실)과 외부 단체(서울 여성 노동 조합, 전국 여성 노동조합)과의 꾸준한 연계 실시

반 성폭력 운동

이제 다시 성폭력의 위협에 놓이고 싶지 않다!!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성폭력 근절과 예방에 관한 규정(가)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내에서 성폭력이 사라질 때까지 경희 5000여학우와 함께 할 것이다.

- @ 성폭력 관련 규정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 @ 단대 학생회와의 간담회 실시
- @ 교양강의 설문 조항 내 성차별적 발언과 행동에 관한 문항 첨가 및 이를 통해 제재

연대 사업

사회에 먼저 나가서 싸우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

- @ 기지촌 활동- 하루 기화로 성매매에 관한 재인식
- @ 농민학생연대활동- 여성 농민회와의 연대

복지

편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 @ 단대 여학생 휴게실 건설 및 복지시설 확충
- @ 복지 회관 여학생 휴게실 '미랑' 여성학 관련도서 확보를 통한 특수화
- @ 생리대 자판기 전면 교체
- @ 실직 여성가장 자녀 돕기 바자회 개최 및 장학금 지급

세상에 판지걸기는 계속된다 !!

- @ 화장실 통신
- @ 여학생 휴게실 일일 카페

@ 여성 문화제

- @ 여성주의적 목소리를 담아내는 <편집위원회> 강화
- @ 한티 회의 위상을 세우고 확대 및 강화
- @ 단대 일꾼과의 간담회
- @ 여학생과를 여학생처로 승격

여성학 강좌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서연지심과 끼어드기 한 판
판지걸기

저의 아버지 성은 * 씨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은 *씨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성은 또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나서 얻은 성은 아버지의 성이구요. 그리고 제 딸이 태어나도 그 아이는 남편의 성을 이어받겠죠. 그렇다면 성을 이어받는 모습이 한 성에 국한되어 있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성을 쓰지 않냐구요?

이런 것은 호주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근데 거기서는 여성과 남성의 결합만이 온전히 인정받는 모습을 낳았다더군요. 그래서 동성애 가족이나 미혼모 가족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의 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며 남성에게로 부여되는 권한으로 인해 3만명의 여아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배속에서 살인되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 받는 수많은 형태의 가족을 예를 들어 미혼모 가정이나 동성애 가족이 인정받고 싶으나 세상에 정해진 법 때문에 세상의 그늘 아래로 갇혀 버린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호주제가 불러오는 그 많은 피해를 우리 주위 누군가가 당한다면 그리고 그 피해자가 꽤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드러내고 당당히 싸우고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하여....

그래서 세상 사람 누구나가 살기 좋은 그야말로 달콤한 세상을 위하여. 저희는 성을 쓰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5000 여성이여!
지구적으로 저항하라!**

서연 · 지심과 끼어들기 한 판

다
크
쌩
싸
르
고
하
는
세
상
에
끼
어
드
러
기
하
는
판